

북한의 무역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할 것인가?: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김규철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kyoochul@kdi.re.kr

I. 서론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북한 무역은 2022년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 국경을 봉쇄한 지 2년 만에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북한의 대외무역액이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친 충격은 매우 컸다. 1월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고, 무역액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2022년의 북한 무역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23년 1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무역을 장밋빛으로만 전망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

대북제재 이후 북한 당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자력갱생이었다. 무역 제재로 인해 대외무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오랫동안 자구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온 북한일지라도 필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등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획득함에 있어 대외무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말하는 자력갱생은 최대한 국산화하고, 재자원화하되, 이것이 불가능한 품목은 하는 수 없이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소비재와 중간재 등 다양한 품목을 수입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2020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북한 당국은 역병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봉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제재 이후 그나마 유지되던

* 본 연구는 한반도경제협력원(2023) "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 제2부 3장 무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중국과의 교역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2020~21년의 기간 동안 자력갱생은 더욱 강조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의 봉쇄 조치는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2021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4.5%, -0.1%로 나타났고, 북한 당국 역시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자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1월에 북·중 사이의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화물열차 운행은 5월에 다시 중단되었고, 9월 말에 재개되는 등 북한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2022년의 화물열차 운행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 화물열차 운행으로 북한의 무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황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 2022년의 북한 무역은 2020~21년과 다른 특징이 있을까? 본 연구는 북한의 대중국 무역자료를 분석하여 2022년 북한 무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분석하고, 북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기초하여 2023년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해관통계에 근거하여 2022년 북한의 공식 무역을 총액 측면, 상품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비공식 무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주요국별 교역 비중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21년 북한 대외무역의 95.56%가 중국과 교역한 것이다. 그 외에 베트남이 1.69%의 비중을 보일 뿐 나머지 국가들은 북한과의 교역액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¹⁾ 2022년에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대북한 교역이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수물자가 화물 열차를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었다는 보도²⁾가 있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외화나 핵심 물자 등을 반대급부로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는 정황은 수차례 포착되었다.³⁾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무역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북·러 교역 데이터는 입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2년 북한의 대외교역은 예년과 같이 북·중 교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kosis.kr/bukhan/index/index.do>).

2) 「YTN」, 「北, 지난해 러시아에 군수물자 제공...대공 미사일 수천 발 추가 양도할 듯」, 2022. 12. 22.

3) 「데일리NK」, 「北, 러시아서 식료품 등 들여와...갑자기 왜 화물열차 재개했나」, 2022. 11. 21.

II. 2022년 북한의 對중국 무역

1. 북중무역 개괄

2022년 1월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북·중 육로 운송이 재개되었다.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 운행되던 화물열차의 재개 소식으로 북·중 교역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4월 말 단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도시가 봉쇄되면서 화물열차 운행이 다시 중단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화물열차 운행 중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걱정한 북한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한 것은 5월 12일이었다.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 된 지 약 2주 후였다. 이후 북한은 지역 봉쇄 등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대응하였고, 3개월 후인 8월 11일에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도 유열자(발열자)가 산발적으로 있다는 소식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한 달 반 뒤인 9월 26일에 북·중 화물열차는 재개되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전 승리를 선포한 이후 중국 측에 열차 운행 재개를 요구했으나 9월 말이 되어서야 국경 봉쇄 해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처럼 2022년의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북한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재개와 중단이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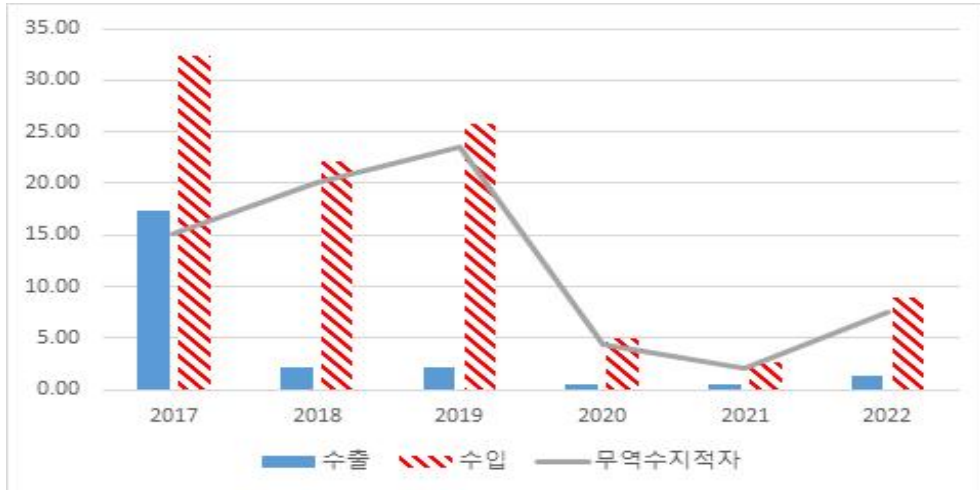
[그림 1]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북한의 대중무역 추이를 제시한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총 10.3억달러로, 전년 무역액인 3.2억달러의 324%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3억달러로 2021년 수출액인 0.6억달러 대비 2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2022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8.9억달러로 전년 수입액인 2.6억달러보다 3.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북·중 무역은 코로나19 사태인 2020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수출과 수입이 각각 62%, 35% 수준에 그쳤다. 다시 말해, 2022년의 북·중 무역액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2021년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했고, 또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대북 무역제재로 타격을 입은 2019년의 무역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0~21년 북한의 무역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4) 『연합뉴스』, 「『도시 봉쇄』 중국 단둥 코로나 확산...북중 화물열차 또 멈추나」, 2022. 11. 2.

5) 『VOA』, 「북중 화물열차 재개, 교역 정상화 신호탄...북중러 3각 경제 공조 본격화 가능성」, 2022. 9. 28.

[그림 1] 북한의 대중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

(단위: 억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3. 1. 25).

사태하에서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2022년에 무역액이 반등한 것을 두고 북한의 경제상황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2022년 북한의 무역은 여전히 침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의 무역액이 급감하며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2019년 23.6억달러, 2020년 4.4억달러, 2021년 2.0억달러로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7.6억달러(전년 대비 3.8배)를 기록했다.

[그림 2]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월별 수출액, 수입액 추세를 제시한다. 2020년 하반기 이후 1년 가까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던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2022년 1월에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된 이후로도 상승세는 유지되었고, 4월에 1.02억달러로 코로나19 봉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4월의 무역액은 화물열차 재개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증가하지 못했는데, 이는 화물열차를 통한 무역이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에서 상품 계약, 운송 업체 계약, 상품 구입 등 시간 지체 요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월 말에 북한 측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여 화물열차 운행을 다시금 중단하면서 5~6월의 무역액은 월평균 0.2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7월에서 9월 말까지는 화물열차가 운행되지 않았음에도 교역액이 증가하였는데, 화물열차가 운행되기 이전에도 필수재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해상운송이 증가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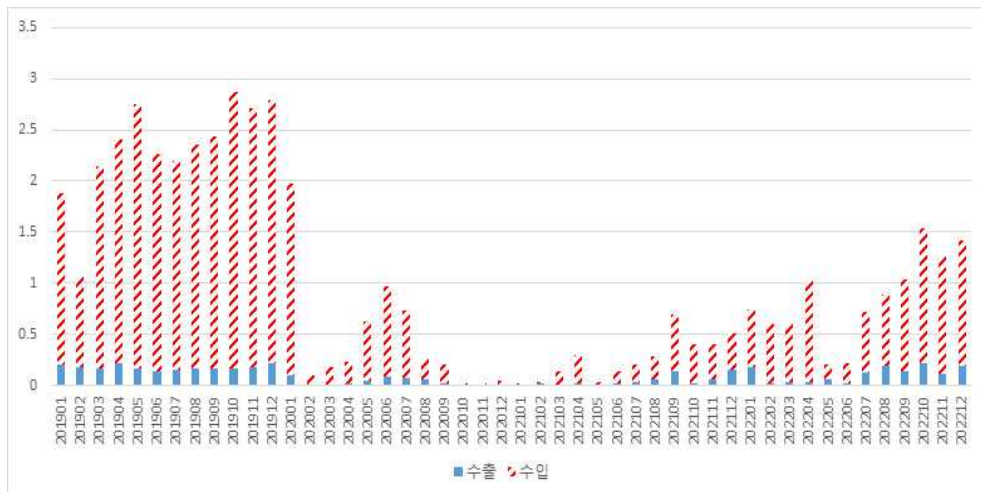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10월 이후로는 무역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화물 트럭 운행과 인적 왕래는 금지된 상황으로, 북·중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모두 안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이후의 시점인 2022년 10~12월 기간 동안 북한의 대중국 월간 수출액은 약 0.17억달러, 월간 수입액은 약 1.23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북한의 대중국 월간 수출액(약 0.19억달러), 수입액(약 2.13억달러)과 비교해 보면 수출액은 유사한 수준인 반면, 수입액은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외화를 얻기 위해 수출은 확대할 의지가 있는 반면, 수입은 외화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서만 실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북·중 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은 물론 철도 및 트럭을 통한 육상운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북·중 교역의 중심은 단동-신의주를 통한 철도 및 트럭 운송이었는데, 이는 선박을 통한 무역은 운반할 수 있는 물동량에 한계가 있거나 철도 및 트럭 운송 단가가 해상 교역 운송 단가보다 낮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는 해상을 통한 선박 운송이 단가가 낮으나, 북·중 교역에서는 단동-신의주 간 화물열차나 화물트럭이 단가가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액, 수입액

(단위: 억달러)



주: 수입은 좌측, 수출은 우측.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3. 1. 25).

2. 주요 상품별 분석

가. 북한의 대중 수출품

<표 1>은 2022년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의 수출액(A), 해당 상품의 2021년 수출액(B), 2019년 수출액(C) 그리고 2021년 대비 2022년 수출액 비율(A/B)과 2019년 대비 2022년 수출액 비율(A/C)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한 것은 통상적인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하고,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표 1> 2022년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순위	HS code	품목	2022년 수출액 (A)	2021년 수출액 (B)	(A/B)* 100	2019년 수출액 (C)	(A/C)* 100
1	2611	텅스텐광	3,092만달러	60만달러	5,118%	1,234만달러	250%
2	7202	합금철	2,695만달러	2,682만달러	101%	3,105만달러	87%
3	2716	전기에너지	2,039만달러	1,694만달러	120%	1,143만달러	178%
4	2613	몰리브덴광	1,366만달러	-	-	896만달러	152%
5	6704	가발, 가수염	1,157만달러	37만달러	3,106%	3,106만달러	37%
6	5002	생사	939만달러	272만달러	345%	-	-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3. 1. 25).

북한이 2022년에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텅스텐광과 그 정광(HS 2611)’으로, 3,092만달러를 수출했다. 텅스텐광의 대중국 수출은 2021년에는 60만달러에 그쳤으나 2022년에 급증했고, 2019년 수출액인 1,234만달러에 비해서도 2.5배로 증가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무연탄, 철광석 등 주요 광산물 수출을 금지하였고, 이후 북한은 비제재 광산품을 발굴하였는데, 텅스텐이 대표적인 대체 수출품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된 품목은 ‘합금철(HS 7202)’로 수출액은 2,695만달러를 기록했다. 합금철은 제재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수출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2021년에도 2,682만달러가 수출되어 수출액 1위 품목이었는데, 2022년에는 텅스텐광의 수출이 급증해 2위로 밀렸을 뿐 수출액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합금철은 수출제재 위반 품목인 철강(HS code 72)에 포함되어 북한의 수출이 금지되었음에도 꾸준히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다.⁶⁾ 중국은 북한산 합금철 수입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수입을 지속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북한 전문매체는 제재 품목인 '철(iron)에 '철 합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중국이 북한산 규소철 수입을 지속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⁷⁾

북한의 대중국 수출 3위 품목은 '전기 에너지(HS 2716)'로, 2022년 수출액은 2,039만달러로 나타났다. 2017~20년의 기간 동안에는 전기 에너지 수출액이 연간 약 1,100~1,200만달러 수준으로 일정하였는데, 2021년에는 1,694만달러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000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202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이후 전기 에너지 수출액의 증가는 수출 물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17~22년 기간 동안 전기 에너지의 단가는 약 \$0.04/kWh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2021~22년 수출 물량이 이전에 비해 증가해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전기 에너지의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월 꾸준하게 일정 금액이 수출되었는데, 이는 철도나 선박 등이 아닌 전선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대중국 전기 에너지 수출 증가와 관련하여 북한 내부의 전력 사정을 회생시키면서까지 수출을 증가시킨 것인지, 무연탄 수출이 막히자 이를 화력 발전에 활용하여 전기를 수출하는 것인지, 전기 에너지 수출로 실제 외화가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 가는지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중 4위를 차지한 것은 '몰디브덴과 그 정광(HS 2613)'이었다. 2021년에 전혀 수출되지 않았던 해당 품목은 2022년에 1,366만달러 거래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도 896만달러 수출되었으나 2022년에는 1.5배 가까이 더 많이 수출된 것이다. 몰디브덴 역시 텅스텐과 마찬가지로 비제재 광물이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외화 수급 목적으로 중점적으로 수출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제재 이후 대표적인 임가공 수출품인 '가밭과 가수염 등(HS 6704)'이 대중국 수출 5위 상품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수출액은 1,157만달러로, 2021년 수출액인 37만달러의 31배이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북한의 대중국 가밭, 가수염의 월별 수출액과 수입액을 보여준다. 제재 이후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월평균 21만달러의 가밭과 가수염을 수입하고 222만달러를 수출했으나, 2020년 이후로는 해당 품목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4월에 가밭, 가수염의 대중국 수입이 2년 만에 코로나19 이전의 약 7배 수준인 147만달러로 갑작스레 급등하였다. 이어서 5월부터 가밭, 가수염 수출이 본격화되었고, 10월에는 183만달러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하였다. 9월과 11월에

6) 김규철(2022).

7) 『동아일보』, 「中,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에도 북한산 규소철 수입 급증」, 2022. 1. 23.

각각 515만달러, 217만달러어치의 수입이 기록되었다. 12월에는 232만달러의 수입과 890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2022년 9월 이후 해당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급증하였다. 2022년 수출액 중 10월 이후의 수출액이 전체의 93%를 차지한 것이다.

북한의 가발, 가수염 상품의 대중국 수입을 재료 혹은 반제품으로, 대중국 수출을 완제품으로 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염병 확산을 걱정한 북한 당국이 2022년 4월에 가발, 가수염 수출을 위해 관련 재료 수입을 늘렸으나, 5월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계획이 늦춰졌고, 코로나19 방역 승리 선언 이후 다시 수입액을 늘림과 동시에 수출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해당 제품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2> 북한의 월별 대중국 가발, 가수염(HS 6704) 교역규모

(단위: 만달러)

기간/월	수출액	수입액
2018.01~2020.01 평균	222	21
2020.02~2022.06 평균	4	0.05
2022.04		147
2022.05	4	
2022.07	22	0.02
2022.09	21	515
2022.10	183	0.1
2022.11	0.2	217
2022.12	890	232

자료: 중국 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3. 1. 25).

2022년에 북한이 중국에 여섯 번째로 많이 수출한 품목은 '생사(HS 5002)'로 나타났다. 생사와 유사한 품목인 견 웨이스트(HS 5003)까지 합치면 2022년 대중국 수출액은 1,291만달러였다. 해당 품목은 2021년에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한 바 있는데, 2022년에는 수출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생사와 견 웨이스트는 견(HS code 50)의 하위분류 품목으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대북제재 이후 대표적인 임가공 산업 품목이었던 가발과 가수염(HS 6704),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HS 9108), 전사용 기구와 모형(HS 9023) 등의 수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하였는데, 이 중 가발과 가수염을 제외하면 다른 품목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 4분기 이후 가발과 가수염의 수출이 급등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2023년에는 기존의 임가공 품목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나.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

북한이 2022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품목에 따라 HS코드 2단위 혹은 4단위로 분류하였는데, 상품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분류 기준에 따라 2단위, 4단위 코드를 정하였다. ‘플라스틱 제품(HS 39)’이나 ‘담배와 담배 대용물(HS 24)’은 4단위로 분류하여 각각 살펴보는 것보다 2단위의 포괄적인 상품으로 살펴보는 것이 수입 상품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므로 2단위로 분류하였다.

<표 3> 2022년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입 상품

순위	HS code	품목	2022년 수입액 (A)	2021년 수입액 (B)	(A/B)* 100	2019년 수입액 (C)	(A/C)* 100
1	39	플라스틱 제품	1억 1,711만달러	3,626만달러	323%	2억 7,310만달러	43%
2	24	담배와 담배 대용물	5,093만달러	2,380만달러	214%	9,209만달러	55%
3	1507	대두유	4,913만달러	632만달러	778%	1억 2,197만달러	40%
4	4011	고무로 만든 타이어	4,386만달러	1,515만달러	289%	3,949만달러	111%
5	3004	의약품	4,085만달러	1,864만달러	219%	4,435만달러	92%
6	1006	쌀	3,321만달러	-	-	7,751만달러	43%
7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3,309만달러	53만달러	6248%	5477만달러	60%
8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3107만달러	257만달러	1210%	1억 6,893만달러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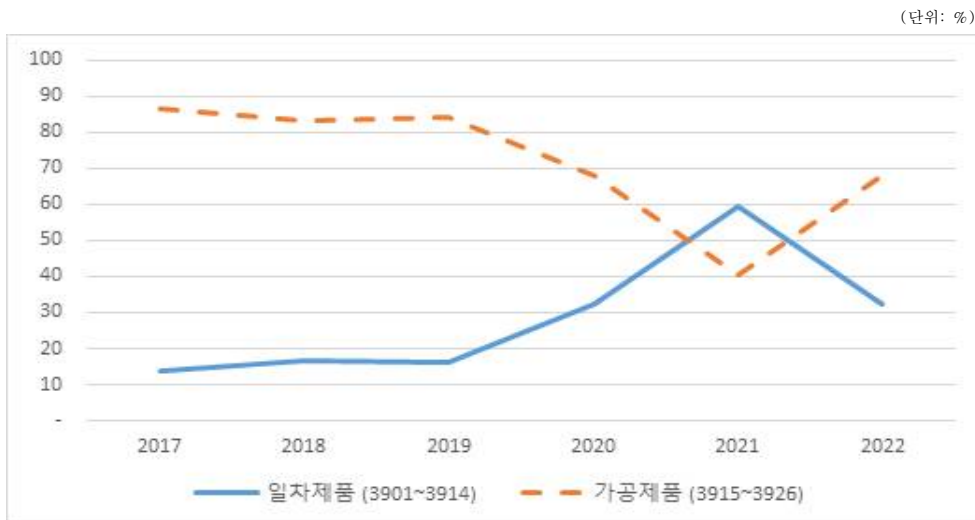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3. 1. 20).

북한이 2022년에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 39)’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북한의 플라스틱 제품 수입액은 2021년 수입액인 3,626만달러에 비하면 3배 이상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수입액 2억 7,310만달러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설 등 여러 산업의 필수 중간재로 활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 추세를 통해 유추해 보면,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산업의 2022년 생산활동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2021년에 비해서는 일부 회복되긴 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일차제품(HS 3901~3914)과 가공제품(HS 3915~3926)으로 분류하여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3]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대중 플라스틱 제품 수입액을 가공 단계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수입 비중을 계산한 추이를 제시한다. 코로나19

상황 이전까지는 일차제품과 가공제품의 수입 비중이 약 2:8이었으나, 2020년부터 일차제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가공제품의 비중이 낮아져 2021년에는 둘의 비중이 역전되어 일차제품이 더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에는 다시 가공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이 일차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보다 많아졌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 생산에서 국산화를 주장해 온 바 있다. 2020년 이후 일차제품의 수입 비중 증가는 이러한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1년에 가장 강조되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가공제품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국산화 정책이 특정 영역에서는 실패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림 3] 북한의 플라스틱 제품(HS 39)의 가공 단계별 수입 비중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3. 1. 25).

2022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담배와 담배 대용물(HS 24)’로 확인된다. 2022년의 수입액은 5,093만달러로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으나 2019년 수입액인 9,209만달러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규철(2022)에 따르면 북한에서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주민의 흡연율이 높기도 하지만, 뇌물을 고일 때(줄 때) 돈 대신 담배가 활용된다고 한다.

2021년에 주요 수입품에서 탈락한 ‘대두유(HS 1507)’가 2022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3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대두유는 2020년에 수입 1위 상품일 정도로 북한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소비재였다. 그러나 2021년 대두유 수입이 전년에 비해 90%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주요 수입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2022년의 대두유 수입액은 2021년에 비하면 7.8배나 증가한 것이다. 제재 이전인 2019년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다. 대두유의 재료인 대두(HS 1201)의 2022년 수입액은 2021년 590만달러에 이어 396만달러로 나타났는데, 2019년, 2020년 수입액이 각각 67만달러, 0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최근 2년간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국산화와 원료 수입을 통한 생산 단가 절감 측면에서 대두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두유 외에도 대표적인 식료품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팜유(HS 1511)의 2022년 수입액은 1,220만달러로 2021년 수입액인 477만달러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0년 수입액인 1,237만달러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HS 1701)의 수입액 역시 2021년 467만달러에서 2022년 2,809만달러로 6배 증가하였고, 밀가루(HS 1101)는 2021년에 34만달러밖에 수입되지 않았으나 2022년에는 1,893만달러로 56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 주요 식료품 수입액은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요 식료품의 수입액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유추해 보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1년에 최저 수준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상위 4위 품목은 '고무 타이어(HS 4011)'로 나타났다. 2022년 수입액은 2021년 1,515만달러의 2.9배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등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무 타이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점은 2022년의 고무 타이어 수입이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보다 많다는 것이다. 아마도 2020~21년 동안 수입되지 못한 물량이 2022년에 한꺼번에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차후 국경봉쇄 등 또 다른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타이어 물량을 비축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고무 타이어(HS 4011)를 세부 품목인 8단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버스용, 화물차용 타이어(HS 401120)의 2022년도 수입액이 2,877만달러로 2017년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용, 광산용, 산업용 차량 타이어(HS 401180)의 2022년 수입액이 299만달러로, 2020~21년의 연평균 47만달러는 물론, 2017~19년의 연평균 94만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된다. 버스용, 화물차 등 운송용 타이어뿐 아니라 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타이어의 수입이 2022년에 급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운송 관련 서비스업 및 여러 산업 부문에서 코로나19의 타격이 극심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2023년 이후에는 북한의 건설업, 광산업 등의 산업 생산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자동차용 타이어(HS 401140)의 2022년 수입액은 2020~21년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으나 2017~19년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조하여 북한 당국이 화물 운송 및 산업용 타이어 수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고무 타이어의 원료인 천연고무(HS 4001)와 합성고무(HS 4002)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바 있는데, 2022년에는 해당 상품의 수입액이 감소하여 2019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2022년의 타이어의 원료인 고무 수입 감소와 완제품인 타이어의 수입 급증은 타이어의 국산화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다.

2022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 상위 다섯 번째 품목은 '의약품(HS 3004)'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간 약 1,800만달러 수준이었던 의약품 수입액이 2022년에는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4,085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수입액인 4,435만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9월 말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 당시 수입이 우선되었던 품목이 의약품과 식료품으로 알려졌다.⁸⁾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외에도 콜레라, 식중독 등 수인성 전염병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와 해열제 등이 주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된다.⁹⁾

2021년에 전혀 수입되지 않았던 쌀(HS 1006)이 2022년에는 3,321만달러(7만 5천톤)어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수입규모는 수입품 중 6위를 기록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 공관 등을 통해 쌀을 수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⁰⁾ 2022년도 쌀 수입액은 밀가루 등 다른 식료품의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하면 급등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2021년 북한주민의 식생활수준이 가장 열악했고, 2022년에는 일부 회복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시점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악화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한 상품은 편물과 직물이다.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HS 6006)과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 5407)이 각각 2022년 수입액 상위 7위, 8위 품목으로 수입액은 각각 3천만달러를 웃돈다. 2019년 수입액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수준이지만, 해당 상품의 수입액은 2021년 대비 각각 60배, 12배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북한의 의류 산업 생산활동이 2022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탄산염(HS 2836) 수입이 2022년까지 이어졌다. 세부품목으로 보면 탄산이나트륨(HS 283620)이 주로 수입되었는데, 해당 품목이 유리공업과 직물공업 등에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해당 산업 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 『자유아시아방송』, 「북, 운행재개한 화물열차로 의약품·식품 대량 수입」, 2022. 9. 26.

9) 『자유아시아방송』, 「북, 지난달 의약품 대거 수입 지속...수인성 질병 치료제 많아」, 2022. 9. 20.

10) 『동아일보』, 「북한, 인도서 쌀 1만t 수입 추진...심각한 식량난 가능성」, 2022. 8. 29.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샴푸(HS 3305)와 치약(HS 3306) 등 개인 위생용품의 수입이 2022년에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해당 상품은 2021년에 전혀 수입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아도 2022년의 수입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유사하게 비누의 원료인 유기계면활성제(HS 3402)의 수입 역시 2022년에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위생용품의 수입 증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 위생 및 방역을 강조한 북한 당국의 기조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III. 북한의 비공식무역

2022년 1월에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트럭을 통한 화물 운송과 인적 왕래는 중단된 상태로, 선박과 열차 운송이 유일한 무역 통로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빈번했던 압록강, 두만강을 통한 밀무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¹¹⁾ 따라서 2020년 이후 비공식무역은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환적이 전부라고 간주할 수 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2022년 북한의 비공식 무역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북한의 석유제품 밀반입과 석탄 밀반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이후에도 석탄 밀수출과 석유제품 밀반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철(2022)은 UN 안보리 보고서를 정리하여 2017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2020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50회 이상 이루어진 석탄 불법 환적이 2021년에는 월 평균 10회로 감소하였고, 밀수출된 물량도 2020년 최소 480만톤에서 2021년 1~5월 기간 동안 36.4만톤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에 발간된 UN 안보리 보고서(S/2022/132)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석탄 밀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low level)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9월 보고서(S/2022/688)에도 석탄 밀수출 횟수와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으나 여전히 북한이 석탄 밀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1) 'HUMAN RIGHTS WATCH', 「북한: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국경 봉쇄」, 2022. 11. 17.

2022년 이후 북한의 석탄 밀수출 물량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22년 북한의 석탄 밀수출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 언론 보도¹²⁾를 통해서도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밀수출 규모와 판매 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2022년의 북한의 석탄 밀수출은 2021년에 비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여러 보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후, 중국 측에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있어 대외무역 재개는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에 필요한 외화 획득 측면에서 석탄 밀반출은 유용한 수단이기,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등 무역이 증가한 2022년의 상황하에서 석탄 밀수출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2023년 3월에 2022년 대북제재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기대한다.

2022년 3월에 발간된 UN 안보리 보고서(S/2022/132)에 따르면 북한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도입한 석유제품 물량은 (유조선 용량의 90%가 적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53만배럴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2020년 1~9월, 90% 적재 가정) 도입 물량 추정치인 442만배럴의 12%에 불과하다. 또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 홈페이지¹³⁾에 공개된 2021년 북한의 공식 도입 물량은 9.2만배럴로, 2020년의 15만배럴에 비하면 크게 감소하였다. 즉, 2021년 북한의 석유제품 도입량은 공식과 비공식 추정치 모두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2022년의 석유제품 도입 물량은 어떨을까? 우선 2022년 북한의 석유제품 공식 도입 물량은 1월부터 10월까지 6.6만배럴로 나타났다. 2022년 9월에 발표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중간보고서(S/2022/688)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도입한 물량을 (유조선 적재용량의 90% 환적을 가정할 경우) 46만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2022년 5월 이후의 불법 도입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예년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 정보를 종합해 보면 2022년의 불법 도입 물량이 예년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높다. UN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석유제품 불법 환적 횟수는 1월에 8회, 2월에 7회, 3월에 8회, 4월에 4회로 불법 도입은 매달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4월 말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북·중 간 화물열차 운송이 다시 중단되었

12)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중국으로 밀수출 정황」, 2022. 6. 30, 「데일리NK」, 「외화 부족한 北, 中이 석탄 가격 후려쳐도 빨리 넘기려 혈안」, 2022. 11. 4.

13)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

음에도 석유제품 도입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5~9월에도 선박을 통한 교역은 이어졌고, 화물 열차 운행이 중단된 직후인 5월에 한 차례 무역액이 감소했지만 이후로는 증가 추세였다. 석유 밀반입은 공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와 국경봉쇄의 영향이 적었을 것이다. 4월까지의 도입 물량인 46만배럴의 기간을 단순히 9월까지로 연장해보면 2022년 1~9월까지 도입 물량은 104만배럴로, 전년 동기 도입 물량인 53만배럴의 약 2배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앞 장에서 2022년에 북한의 고무 타이어의 수입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운송 수요가 크게 증가했거나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운송 연료인 석유제품의 2022년도 도입 물량 역시 2021년보다 증가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VI. 2022년 북한의 대외교역 평가와 2023년 전망

2022년은 북한의 대외교역에 있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인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육로 국경봉쇄가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풀렸고,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화물열차 운행은 다시금 중단되었고, 북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전 승리 선언과 화물열차 운행 재개로 북한의 무역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22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34억달러, 수입액은 8.94억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액은 1.3배, 수입액은 2.4배 증가하였다. 2022년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 시점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그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21년 북한의 무역 상황이 1990년 이후 최악이었다는 점에서, 2022년의 무역액이 2021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북제재라는 제약 상황하의 2019년 무역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 북한의 무역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최악의 상황(2021년)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2년에는 텅스텐과 몰리브덴과 같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광물이 주요 수출품으로 부각되었다. 해당 품목의 2022년도 수출액은 2020~21년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전 시점의 수출액보다 많아 북한 당국이 전략적으로 수출 상품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금철과 생사와

같이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금지한 품목들도 여전히 주요 수출품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전기 에너지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들은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며, 그 양이 최근 2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이 급감했던 가발, 가수염의 수출이 2022년에 다시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등극하였다. 해당 품목은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의류를 대체한 대표적인 비제재 임가공 품목으로 2020년 이후로는 수출이 미미했으나, 2022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급등해 2023년 이후로는 수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2022년에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한 품목들은 플라스틱 제품, 고무 타이어, 편직물 등 중간재와 대두유, 쌀 등 식료품이 있다. 이 중 고무 타이어의 수입액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아,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운송 수요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에 수입이 전무했던 쌀이 2022년에는 7만 5천톤 수입되었는데,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 및 배급 실태와 관련하여 연관시켜 볼 여지가 있다. 2022년 북한의 편물과 직물의 수입이 전년 대비 수십 배 이상 증가한 것을 통해 북한의 의류 생산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푸와 치약, 비누 원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위생을 강조해 온 북한 내부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2022년 북한의 석탄 밀수출 및 석유제품 밀반입에 대한 수치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 증거에 기초하면 2022년 북한의 비공식무역은 전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9월 말에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이후 최근까지 운행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11월에는 중국 당국이 오랜 기간 고수해 온 ‘제로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중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중국정부는 결국 12월 초에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완화하였다. 이후 수억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북·중 국경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¹⁴⁾ 2023년 1월 말에는 평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평양시 출입이 봉쇄되었다는 소식¹⁵⁾이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장마당 소독 의무화, 지역 간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경을 봉쇄하지는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북·중 교역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있으나,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다시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의 상황을 두고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외무역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14) 『자유아시아방송』, 「지금 북한은」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3. 1. 17.

15) 『자유아시아방송』, 「평양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일주일 봉쇄령, 2023. 1. 25.

북한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무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으며, 북한의 보건 및 방역 체계 역시 취약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질 경우 다시 경제(무역)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2023년 북한의 무역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북한 당국의 대응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교역이 확대될 것인지 축소될 것인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의 외화 보유 사정 역시 대외교역에 중요한 요인이다. 대북제재로 주요 수출품 교역이 금지되고,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 수입이 크게 줄면서 북한의 외화 보유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은 비제재 수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출액은 무연탄, 의류, 수산물 등 기존 수출품의 교역 규모와 비교해 보면 매우 작다. 따라서 제재 이전과 같이 수입규모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20~21년과 같이 극단적으로 무역규모를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의 2022년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7.6억달러인데, 2019년에는 23.6억달러였다. 북한의 외화 수급을 추정한 장형수(2021)에 따르면 북한이 2019년과 같은 무역수지 적자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수입 역시 필수적인 품목 위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2023년 북한의 무역은 한반도 주변의 정치·외교·안보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무역 마찰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만과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여부도 북한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만약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성능이 개선된 ICBM 발사 등 도발행위를 할 경우 대외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바뀔 경우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도 있다.

북한의 무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 이전 상황인 2017~19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대북제재 이전인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두 번의 힘겨운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2023년 북한 무역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2023년 북한의 대외교역은 화물열차 운행 지속 등을 통해 코로나19 시기(2020~22년)에 비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마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을 면한 수준에서 일부 회복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머물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규철, 「지속된 코로나19와 북한의 대외무역: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KDI 북한경제 리뷰』, 2022년 1월, 2022.
- 『데일리NK』, 「외화 부족한 北, 中이 석탄 가격 후려쳐도 빨리 넘기려 혈안」, 2022. 11. 4.
- _____, 「北, 러시아서 식료품 등 들여와...갑자기 왜 화물열차 재개했나」, 2022. 11. 21.
- 『동아일보』, 「中,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에도 북한산 규소철 수입 급증」, 2022. 1. 23.
- _____, 「“북한, 인도서 쌀 1만t 수입 추진...심각한 식량난 가능성”」, 2022. 8. 29.
-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중국으로 밀수출 정황”」, 2022. 6. 30.
- _____, 「“도시 봉쇄” 중국 단둥 코로나19 확산...북중 화물열차 또 멈추나」, 2022. 11. 2.
- 『자유아시아방송』, 「북, 지난달 의약품 대거 수입 지속...수인성 질병 치료제 많아」, 2022. 9. 20.
- _____, 「북, 운행재개한 화물열차로 의약품·식품 대량 수입」, 2022. 9. 26.
- _____, 「[지금 북한은]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3. 1. 17.
- _____, 「“평양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일주일 봉쇄령」, 2023. 1. 25.
- 장형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이석 편,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연구보고서 2021-01, 2021.
- 『HUMAN RIGHTS WATCH』, 「북한: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국경 봉쇄」, 2022. 11. 17.
- 『VOA』, 「“북중 화물열차 재개, 교역 정상화 신호탄...북중러 3각 경제 공조 본격화 가능성”」, 2022. 9. 28.
- 『YTN』, 「“北, 지난달 러시아에 군수물자 제공...대공 미사일 수천 발 추가 양도할 듯”」, 2022. 12. 22.

<웹사이트>

-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3. 1. 25).
- 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3. 1. 25).
-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각 년도(S/2019/171, S/2020/151, S/2021/211, S/2021/777, S/2022/132, S/2022/688)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

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 검색일: 2023. 1. 25).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 검색일: 2023. 1. 25).